

준비는 달라도 목표는 주전... 호랑이들 '따로 또 같이'

KIA 캠프전 비활동기 12월·1월 캠프파·해외파 등 나눠 자율 훈련
한승택·임기영 등 챔스필드서...최형우·유민상·이창진 등 팜서 구슬땀

각기 다른 곳에서 다른 목표를 추구하던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성공'이라는 같은 지점을 향해 달린다.

KIA는 지난 1일 미국 플로리다 포트마이애스에 스프링캠프를 꾸리고 2020시즌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캠프 출발에 앞서 선수들은 비활동기간인 12월과 1월 '워밍업'을 하면서 치열한 경쟁에 대비했다.

옛 윌리엄스 감독이 새로 지휘봉을 잡으면서 제로 베이스에서 시즌을 시작하게 된 만큼 선수들은 준비과정에서부터 뜨거운 경쟁을 했다.

가장 많은 이들이 경쟁의 베이스캠프로 삼은 곳은 '챔피언스 필드'였다.

익숙한 곳이고, 체력·기술 훈련을 모두 소화하기에 여건이 좋은 만큼 많은 이들은 시즌처럼 챔피언스필드로 출퇴근했다.

한승택, 황윤호, 임기영, 홍건희, 김호령, 나지완 등이 챔피언스필드의 개근생이었다. 이들은 구단에서 제시한 운동 스케줄에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구슬땀을 흘렸다.

'집밥'의 힘으로 시즌을 준비한 선수들도 있었다.

하준영은 고향인 서울에서 휴식기를 보내며 마음 편하게 체력을 키우는 데 주력했다.

하준영은 "지난 시즌 기복이 문제였고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체계적인 부분에서 부족했던 것 같다. 그런 부분에 신경 쓰면서 운동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더 신경 썼다"고 말했다.

따뜻한 곳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몸을 끌어올린 '해외파'도 있었다.

야수 최고참 최형우는 후배 유민상, 이창진, 최원준과 팜으로 건너가서 스프링캠프를 대비했다.

지난해 아들 출산 문제로 '팜 자체 캠프'를 건너 뛰었던 최형우는 올 시즌 다시 루틴대로 팜을 사전 훈련지로 선택했다. 최형우는 후배들을 위해 속식도 제공하면서 마음도 따뜻한 겨울을 보냈다.

박준표도 올 시즌 처음 해외에서 시즌 준비에 속도를 냈다.

박준표는 모교 동강대 후배들의 필리핀 전지훈련에 동행해 피치 훈련도 소화했다. 박준표는 '동강대 1호 프로선수'라는 책임감 속에 많은 것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제주도에서 2020시즌의 꿈을 달군 선수도 있다.

이준영은 친구 김명찬, 후배 홍원빈과 프로야구 선수협회가 마련한 제주도 서귀포 트레이닝 캠프에 참가했다. 서귀포 트레이닝 캠프는 올 시즌 처음 마련됐으며,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의 지원 속에 진행됐다.

이준영은 "훈련이 체계적인 것도 있고, 순발력이나 파워 운동을 많이 하고 안 다치는 운동을 한다고 해서 참가했다. KIA, LG 트레이너분들도 계시고 많은 걸 배웠다. 안 해본 운동을 많이 해보



최형우

유민상

임기영

이준영

니까 좋았다"며 "내년에도 한다면 무조건 갈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또 "파워가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순간 쓰는 힘이 좋아졌다. 가동성 관련해 스트레칭이랑 보강 운동 많이 했다. 가동 범위가 넓어지면 스피드도 나오고

힘 있는 공을 던질 수 있는 것 같다. 나름대로 공부 좀 했다"며 제주 캠프를 이야기했다.

다른 장소, 다른 마음으로 진행된 KIA 자체 캠프가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황의조, 석달만에 골 맛



황의조 <출처=보르도 트위터>

프랑스 리그1 브레스트전
전반 10분 선제골... 보르도 12위로

프랑스 프로축구 보르도에서 활약하는 공격수 황의조(28)가 리그양(1부)에서 석 달 만에 득점포를 가동했다.

황의조는 6일(한국시간) 프랑스 브레스트의 스타드 프랑시스-르 블레에서 열린 2019-2020 리그 양 2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전반 10분 선제골을 터뜨렸다.

1골 1도움으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던 지난해 11월 4일 낭트와의 12라운드 이후 3개월 만에 터진 골이다.

이번 시즌 보르도 유니폼을 입고 '유리파'가 된 황의조는 이날 득점을 포함해 리그양에서 4골 2도움을 올렸다.

이날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격한 황의조는 경기 시작 10분 만에 0-0 균형을 깨뜨렸다.

코너킥 이후 니콜라 드 프레빌이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황의조는 번쩍 뛰어올라 헤딩 슈트로 마무리했다. 공은 왼쪽 골대를 맞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에도 황의조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으나 추가 골로 이어지지 못했다.

전반 15분에 페널티 지역 왼쪽을 파고들어 슈팅했지만, 앞으로 나온 상대 골대에 라르소니르 골키퍼가 몸을 날려 잡아냈다.

후반 5분에 드 프레빌의 크로스를 골 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 발리슛으로 연결했으나 이번엔 골대를 맞은 공이 튀어나오고 말았다.

황의조의 선제골을 후반까지 지키던 보르도는 후반 23분 상대 중앙 수비수 장-샤를 카스텔레토의 퇴장까지 나오며 승리의 유리한 고지를 점했으나 승점 3을 지키지 못했다. 후반 35분 수비수 로리스 베니토의 자책골이 나오며 1-1로 비겨 2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다. 승점 31을 올린 보르도는 리그 12위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구세주' 손흥민



손흥민이 6일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스햄튼과 2019-2020 FA컵 32강 재경기에서 페널티킥 키커로 나서 결승골을 넣고 있다.

/연합뉴스

FA컵 32강 사우스햄튼전 2-2 상황서 PK 유도해 결승골
토트넘 3-2 재역전승... 다음달 6일 노리치시티와 16강전

손흥민(28·토트넘)이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천금같은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에 짜릿한 '재역전승'을 선물했다.

손흥민은 6일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스햄튼과 2019-2020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32강 재경기에서 2-2로 맞선 후반 42분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넣었다. 4경기 연속 골이자 시즌 14호골이었으며, 팀을 FA컵 16강으로 이끈 소중한 골이었다.

이번 경기는 지난달 26일 1-1로 비졌던 사우스

햄튼과 치르는 재경기였다. FA컵 32강전까지는 90분 안에 승부가 나지 않으면 연장전·승부차기 없이 재경기를 치러야 한다.

손흥민은 3-5-2 포메이션에서 모우라와 함께 투톱으로 선발 출전했다.

이날 토트넘과 사우스햄튼은 경기 종료를 3분여 앞둔 순간까지 2-2로 팽팽하게 맞붙었다.

토트넘은 전반 12분 은돔벨레의 슈트 상대 수비수 스티븐스의 다리에 맞아 골절되며 들어간 자책골로 선취점을 따냈다. 하지만 전반 34분, 후반 27

분 잇따라 골을 허용하며 곧 2-1로 역전당했다. 역전패 위기에 몰린 토트넘은 후반 33분 모우라가 페널티 지역에서 쏜 슈팅으로 1점을 추가하면서 가까스로 숨을 돌렸다.

후반 41분, 마침내 재역전의 기회가 왔다. 페널티 지역에서 알리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상대 골키퍼가 내지른 발에 걸려 넘어졌고, 심판은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직접 키커로 나선 손흥민은 침착하게 골대 왼쪽 가장자리로 슈트를 쏘았고, 공은 골키퍼의 손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가 골망에 꽂혔다.

이번 골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성공한 첫 페널티킥 골이었다. 2018년 3월 로치데일과 FA컵 16강 재경기 당시 페널티킥을 성공한 적 있지만 슈팅 직전 밟혔다는 점을 지적받아 득점은 무효, 경고

만 받은 적이 있다. 또한 주력 키커 해리 케인이 있어 손흥민은 페널티킥을 할 기회가 적었다.

4경기 연속골도 의미가 깊다. 손흥민은 지난해 12월 8일 번리전에서 '70m 드리블 원더골'을 넣은 이후 한달 반 동안 골을 넣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노리치시티를 상대로 결승골을 넣으며 '골침묵'을 깬 손흥민은 이후 4경기에서 잇따라 득점포를 가동하며 '부활'했다.

손흥민의 선전으로 토트넘도 상승가도를 달리고 있다. 최근 4경기(3승 1무) 무패를 기록했으며, 리그에서도 승점 37(10승 7무 8패)로 5위에 올랐다.

한편 토트넘은 다음달 6일 노리치시티와 FA컵 16강전을 치를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